

'사람·환경 공존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전주시, 안전한 농산물 관리·전주대표 농식품 상품화 등 농업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는 농업을 위한 대응 역량을 위해 안전한 지역먹거리 공급을 확대하고, 전주 농산물 명품화를 위해 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 등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대응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16일 농업기술센터 신년브리핑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을 비전으로 한 농업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에는 안전한 농산물 관리 및 전주대표 농식품 상품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로 경쟁력 강화, 기술과 혁신을 통한 미래농업 대응역량 강화,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행복도시 실현을 이루기 위한 포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초·중·고·특수학교 261개교에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환경급식 농자재 지원

보조율(60%~70%)과 친환경인증비용을 상향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급 등 신규사업도 추진된다.

전주대표 농특산물인 미나리와 배, 복숭아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 상품화를 통해 농가의 판로를 돕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해 농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주농산물 명품화를 위한 공동브랜드를 육성해 전주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전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을 갖추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차세대 미래농업을 주도할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하고,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농촌인력 고용 지원을 통한 농번기 일손부족해소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등의 세심한 복지정책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도 높인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화된 수산동 냉동창고와 음식물감량기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시설 등 디지털농업 활용기술을 지원하고, 아열대작물 재배기반을 확대하는 등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는데 공을 들이기로 했다.

농산물 피해 예방과 농가 경영비 절감, 농가 소득향상 등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돕기 위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현대화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 과수 신품종 묘목 및 연동하우스 지원' 등을 추진한다.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전주 시 5개 기관과 연계한 치유농업 프

그램과 학교터밭·주말농장·옥상텃밭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공영도시농업 체험단지 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도시농업 활동을 즐기도록 만들기로 했다.

여기서 시는 '반려동물놀이터 추가 조성, 찾아가는 반려동물 예절교육, 동물보호 홍보 캠페인, 유실·유기동물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동물보호시설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등 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행복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힘을 계획한다.

김중성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안전한 관리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예고

전주 기령당·최성일 전주 향토 한지장 2건

'향토문화유산'이란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은 것 중 향토의 역사·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보존·보호할 필요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 기령당과 최성일 전주 향토 한지장을 전주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예고된 2건 중 전주 기령당은 본래 활을 쓰던 활터인 군자정(君子亭)이란 건물로 상량문에 1844년에 건립됐다는 기록만 남아 있고 194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로시설로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기령당은 조선 후기부터 1920년대까지의 한옥 변화과정과 건축수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체적인 부재가 건설하고 우수한 조각수법을 간직하고 있는 등 건축적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전주를 대표하는 가장 오래된 경로시설로, '전라도도선생안'과 '전주시선생안' 등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많이 소장돼 있어

문화재원이자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최성일 전주 향토 한지장은 국산 닥나무와 천연재료를 황촉규 등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고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전통한지 장인이다.

그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중요문화유산 연구실행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과 2009년에는 대한민국 청소년 창작한지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07년),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2008년)과 협약을 체결해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복원중앙연구소(ICPAL)로부터 성일한지 2종을 보존·복원용 종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이에 시는 한지 제조 전통 방식의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 체계적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해 노력해 온 최 한지장을 전주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 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완산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디지털 지적행정 구현... 구민 재산권 보호·지적행정 신뢰성 제고

전주시 완산구는 디지털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2023년 6월까지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구는 고화질 스캐닝 작업을 통해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해 저장함으로써 지적기록물 관리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토지분할 및 등록전환

등이 완료된 지적측량결과도 2513면(2013.1월~2019.4월 생산분)이다.

기존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등으로 토지의 변천 과정을 밝혀주는 중요한 문서다.

일제강점기에서 1990년대까지 근 100

여 년 동안 종이로 작성해 사용하면서 마모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고 화재 등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2015년부터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1910년부터 생산·보관중인 지적측량 결과도를 순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산구는 이 사업으로 각종 재난으

로 인한 문서의 훼손·멸실에 대비한 복구자료를 확보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적행정 및 각종 측량 업무 자료조사에서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 재산권 분쟁과 민원불편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중요 지적 기록물의 영구적 보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시장은 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덕진동 주민 등 200여 명과 함께 '전주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대화의 시간을 16일 가졌다.

전주덕진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 추진

전주덕진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자 및 입주자 대표 등 주민들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2020년~2022년)동안 전북 지역에서는 440건의 공동주택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8명의 인명피해(사망 3명, 부상 38명)와 12억60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에 나선 것이다.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 교육은 '소화기, 소화전, 연결송수관 등 소방시설 사용법, 경량칸막이, 완강기,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 공동주택 맞춤형 화재 대피요령, 주민 대상 소방시설 사용법 체험' 등을 담아 진행했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거주자와 관리자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도 화재 안전을 위해 세대별 화재 대피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보건소, 찾아가는 장애인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전주덕진보건소는 스스로 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지역민 구강건강관리를 펼쳐며 앞장서고 있다.

덕진보건소는 구강검진에 따른 예방진료서비스를 연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구강건강관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립재활원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에서 장애인이 가장 자주 겪는 질환으로 조사된 치은염과 치주질환 등 구강건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일상 동작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들이 잇솔질을 대신해 주고는 있어, 음식물 찌꺼기가 많고

잇몸이 부어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이 발생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다.

덕진보건소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등의 신청을 받아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덕진보건소 구강보건센터(063-281-8535)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특수장애인에 대한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구강건강 유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우범기 시장,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시작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 대변역 성공을 이루기 위해 협찬 대장정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에 우 시장은 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덕진동 주민 등 200여 명과 함께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대화의 시간을 16일 가졌다.

우 시장은 오는 5월 말까지 전주시 35개 동의 시민들과 만남을 이어갈 것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사는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고

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동 현황 보고, 시정운영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시간을 통해 우 시장은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전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경청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새로운 시대를 견인하는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대변역의 꿈을 꾸고 키워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